

고등과학원을 떠나며

글_ 박희철 · 전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연구원



6월 21일 오후 1시, 한국을 떠나 영국을 향하는 BA18기는 스웨덴 상공을 지나고 있다. 한국은 같은 날 오후 8시, 영국은 정오이다. 나의 몸은 아직 떠나온 곳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긴 여정에 올라 푸른 창공에서 지난 3년 반을 몸담았던 고등과학원을 떠나는 소희의 글을 쓰고 있다. 해외 여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시차와 신진대사 부진을 극복하는 것이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그곳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몸은 아직 떠나온 곳의 시간에 머물러있고 그곳의 풍토와 기온을 기억한다. 이것은 두통과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며 몸을 괴롭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내며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의 내가 된다. 고등과학원을 떠난 지 벌써 한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환경, 체계, 업무, 직책이 나에게 시급히 적응하라며 재촉한다. 두통과 소화불량, 피로가 누적된다. 어느 순간 고등과학원에서의 편안함이 여기에서도 지속되며 기초과학원의 일원이 될 것이다.

고등과학원은 이론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곳이다. 나 역시 학생때부터 연중행사를 치르듯 방문하며 꿈을 키우고 동경하던 곳이다. 하지만 첫 출근 때의 긴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첫 출근의 긴장은 헛된 고민과 망상을 배가했다. 과연 내가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잘 적응하고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립과 결핍으로 나가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뿐 멘토 교수님과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이내 적응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고등과학원의 체계가 한몫을 한 것 같다. 고등과학원은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고등과학원의 골격은 학부 교수님들과 연구지원팀이고 그 사이사이 연구원들이 채워지는 것 같다. 사실 모든 분들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지원팀의 얼굴이 한분한분이 떠오른다. 자질구레한 일들 하나하나 챙겨주고 불평없이 도와주고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고 웃음으로 답해주는 지원팀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체계 속에 자리한 인재들에게도 이 시대 평범한 젊은이들의 평범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



다. 각자의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 뒤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연구원들끼리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시시결결한 이야기들로 긴장을 풀기 위한 웃음끼리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주제가 되어도 무언가 집착하듯 그 이유와 결론을 찾아 인과 관계를 맺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직업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취업에 대한 주제가 곧잘 화두로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제시된 사회의 모습을 연구원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분석하고 마음속에 생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엿보였다.

나는 손영우 교수님을 멘토로 하며 그분의 뛰어난 직관과 문제해결 능력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유연한 사고와 몸에서 풍기는 여유가 사람을 끄는 매력인 것 같다. 우성종 연구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의심, 완벽한 논리를 요구하는 집착이 내게 귀감이 된다. 나보다 앞서 다른 곳에서 연구에 매진 중인 최선명, 김세중, 문필경 박사님,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 또 다른 연구원들을 기다리며 사바티카 중인 멘토 교수의 부재를 메우고 있는 꼼꼼이 이준호 박사님, 이들과 함께 했던 고등과학원의 연구생활은 나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 술자리에서 회자될 것이다. 한정된 지면에 나만의 추억을 주저릴 수는 없으니 나만의 아름다운 추억은 한켠에 묻어두자.

하나하나 저마다의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있는 이 곳에서 아쉬운 점은 다른 박사님들과 교점을 찾아 함께 일을 벌이지 못 했던 것이다. 떠나오기 전 물리학부와 계산과학부 박사님들과 저널클럽과 스터디를 하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부분과 다른 연구원들과의 교차점들에 대해 탐구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분들과의 짧은 경험과 교류가 앞으로의 연구와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창밖 구름 사이 하늘이 바다와 같이 펼쳐 있다.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비행사는 추락한다. 나는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 실체를 잡아야겠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의 주머니에 고등과학원의 추억과 자산을 담아 남아 있는 연구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